

“에 파 타 !”

복음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 주신 이야기를 들려준다. 듣고 말하는 것은 소통의 기본 형태인데, 나날이 소통이 어려운 시대, 불통이 문제라고들 하기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더욱 주목된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누구일까? 귀가 먹으면 들리지가 않고, 듣지 못하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웃을 사귀기가 힘들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함께 하는 기쁨도, 자존감을 높일 칭찬도 듣지 못하면 살아가는 보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면 얼마나 갑갑할까?

귀가 먹었을 때는 외부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말을 더듬을 때는 반대로 자신을 외부에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다. 마음 속에는 할 말이 있는데 말이 목구멍을 넘어서지 못하면 얼마나 갑갑할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항변할 수 없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도 표현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 마음을 전할 길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까? 사람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은 상상만 해도 가위에 눌릴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한꺼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상황에 더하여 남들로부터의 차별대우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이 갑갑함을 풀어주실까? 그 과정을 꼼꼼 살피보자. 먼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신다. 그 갑갑함에서 벗어나게 사람들로 부터 분리해 내신 다음 당신 곁에 있게 하신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갑갑함에, 남들만 못한 차별로 늘 뒤쳐진 힘든 상황의 사람을 남들로부터 떼어 개별적으로 따로 대하심으로써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 다음, 얼핏 듣기에 별로 위생적이지 않아 보이는 유별난 행동을 보이신다. 먼저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고 한다. 막힌 곳을 만지는 안타까운 심정이 보인다. 손가락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귀속에 들어가길 바라는 애뜻한 몸짓이다.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한다. 고대 세계에서 침은 치료제였다고 한다. 성서에서도 침은 모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아이의 상처에 침을 발라 고쳐주었고, 아이에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침으로 닦아주었다. 어머니의 침과 같은 친근함에서 비로소 아이가 병이 낫고 보호 받아 성장하듯, 예수님의 상징적 행동에 혀가 풀릴 수 있는 편안하고 보호받는 상황이 마련된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귀먹은 반병어리의 갑갑함을 당신 마음에 품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신다. 인간 고통에 대한 지극한 연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제 귀먹은 반병어리는 예수님 밖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한숨 가운데 귀먹은 반병어리와 하나가 되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에파타!” 곧 “열려라!” 하시자 곧바로 귀가 열리고 묵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자. 매일 들리는 것은 전염병 이야기에 실업자들의 설움, 북 핵의 위협, 사건 사고, 사회만 우울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갈등, 친척들의 우환 소식 들이다. 게다가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통하지 않고,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외국어처럼 들리고, 힘쓰는 이들 앞에서는 말할 기력도 없이 억울해 말 못하고 갑갑해 기가 막히는 현실 아닌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의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다.

이런 내 귀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며 “에파타! 열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들리지

않는 내 갑갑함에, 한숨 쉬시며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다. 사람들은 내가 듣지 못한다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차별하고 천대하더라도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에파타! 열려라!”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의 차별은 듣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으라. “에파타! 열려라!” 기쁜 소식을 들으라. 전염병에, 사고에, 없는 이의 설움, 있는 이의 오만, 안팎의 갈등 소식만 듣지 말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라고, 비록 귀머거리 반병어리라도 너는 귀하다고 네 한숨에 함께 하겠다고 이르신다. “에파타! 열려라!”

이제 내 혀에 당신의 침을 묻힌 손을 대시며 “에파타! 열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기가 막혀 혀가 굳어버렸고 억울해 말도 못하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는 설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께서 이르신다. “에파타! 열려라!” 침 묻은 손으로 자식을 보호하는 엄마 마음으로 내 혀를 고치시며 이르신다. “에파타! 열려라!” 말할 기력도 없고 말해도 통하지 않아 갑갑한 현실을 당신이 껴안아 한숨 쉬며 이르신다. “에파타! 열려라!” 두려워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망설이지 말고 고맙다고 말하라고, 힘들어 하지 말고 진실로 도와달라고, 부끄러워 말고 하느님 감사하다고, 당신을 찬미한다고 말하라고 혀를 풀어주신다.

그렇게 “에파타! 열려라!” 이르시는 분의 한숨과 손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귀를 만지시는 그 손길이 성체로 우리 손에 놓인다. 그 손길을 귀에 받아들이며 너는 나에게 참으로 귀하다고 이르시는 말씀, 나는 내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자. 우리 혀를 만지시는 손길이 성체로 내 혀에 오신다. 그 사랑을 내 혀에 받아들이고 입을 열어 말씀 드리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의 해”에 바치는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2009년 8 월30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45.00	
교 무 금	：	\$ 50.00	184(50)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305.00	182(20) 184(100) 188(50) 196(20) 205(20) 206(20) 214(20) 219(5) 224(50)
(성모동산 누계	：	\$ 2175.00	)
합 계	：	\$ 1100.00	

본 당 소 식

◎ 사목회의 안내

오늘 미사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성인 세례식 안내

9월 13일(주일)에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 구역장 및 단체장 협의회 모임 안내

9월 13일(주일) 미사 친교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축 !! 40주년

오는 9월 7일이 St. Antony Danial 성당이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인 교우들도 함께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타리오 한인 성당 사제모임

일시 : 9월 14일(월) 오후 3시

장소 : 우리 본당 사제관

◎ 견진성사 교육 안내

일시 : 9월 16일(수) 오후 8시 - 교리

9월 18일(금) 오후 8시 - 예절연습

장소 : 교육관

◎ 2009년 여성 꾸르실로 주말 신청 안내

일시 : 10월 15일(목) - 10월 18일(주일)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신청마감 : 9월 15일 (화) / 참가비 : \$ 320.00

문의: 울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9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3구역입니다.

▷ 10월 : 워털루 2구역

▷ 11월 : 청소년부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워털루 2구역 : 9월

▷ 워털루 3구역 : 10월

◎ 성모회에서 버섯 판매를 합니다.

문의 : 성모회 총무 한 데레사

▶ 9월 4일(토)에 개최한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신앙대회에 22명의 교우들이 참가하여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오늘부터 성모회에서 각 구역의 도움을 받아 친교식사를 합니다. 구역 봉사자들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께서는 식사를 하면서 정겨운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기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성경」 안에서의 ‘식사’
의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주님 경외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아라. (집회 9, 16)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 (히브 13, 2)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사도 2, 46 - 47)

= 광고 =

Cambridge Town Center 내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부문 : 스시보조, 데판야끼요리사, 주방헬퍼,

주방아주머니

전화 : 416-919-9091

㉮ 본당신부 단상(斷想)

오는 9월 20일(주일)은 본당창립기념 미사를 성대하게 봉헌할 예정입니다. 본당은 “신자의 영혼에 대한 지도와 전교를 맡은 주임 신부가 상주하는 성당”을 뜻합니다. 본당의 주요역할 중 한 가지는 “선교”입니다. 복음 말씀의 선포와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진리의 선포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입니다. 선교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계층은 없습니다. 공동체가 발전하는나 사그라지느냐는 선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갖는 우리 본당행사는 “돌잔치”에 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초대해주십시오. 준비한 음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2009-38호

2009. 9. 6.

연중 제 23주일

미사 전례

해설 노재현

차주 해설 김손권

성가

입당 (78) 영광의 왕께 찬미를

봉헌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체 (180) 주님의 작은 그릇

퇴장 (283) 순교자 찬가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독서

9월 6일 신상우

신계연

9월 13일 정경래

정문진

봉헌

9월 6일 김동규

김은옥

9월 13일 신상우

신계연

복사

9월 6일 최예슬

강수현

9월 13일 구하람

김근영

친교

9월 6일 성모회와 워털루 1구역

9월 13일 성모회와 워털루 2구역